『기독교사회윤리』 제49집
(2021) 269~304

이범진(李汎鎭)의 금전윤리관과 현재적 함의

- 그의 "人生의 金錢觀"(1921)을 중심으로

안수강(백석대학교 강사)*

I. 들어가는 말
1. 『百牧講演(第一集)』의 역사성과 이범진의 행적
2. 문헌 출판 정보
3. 본 연구의 의의

II. 금전에 관한 윤리의식
1. 일반인의 금전관에 대한 이해
2. 위인의 금전관에 대한 이해
3. 기독교인의 금전관에 대한 이해

III. 교훈의 현재적 함의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1.49.09

* 주저자, skahn0510@naver.com

www.kci.go.kr

• ABSTRACT •

Beom-Jin Lee's Ethical View of Money and Its Present Implications: Focused on His "Human View of Money"(1921)

Adjunct Prof. Ahn, Su-Kang(Baekseok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Beom-Jin Lee's ethical view of money and its present implications, focusing on his "Human View of Money"(1921). This text is based on Luke 12:15. Lee's important ethical view of money is based on his rare and precious work "Human View of Money" published in *Sermons by One Hundred Pastors & Teachers Vol. 1*(1921). The important points of Beom-Jin Lee's ethical view of money and its present implication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 analysed Lee's idea of triple viewpoint such as public ethical view of money, great man's ethical view of money, Christian ethical view of money, and so forth. Secondly, on the basis of Lee's confession, I concentrated on practical paradigms for motivational ethics, good use of money as an effective means, young people's stewardship and calling, the responsibility to return profits to society, and so on. I am looking forward to future extensions of this research into Beom-Jin Lee's other thoughts such as educational activities, youth movement, journalistic activities, meeting of Iugurakbu(以友俱樂部), and so forth.

Key words: Beom-Jin Lee, "Human View of Money", *Sermons by One Hundred Pastors & Teachers Vol. 1*, Ethical View of Money, Christian Ethics

www.kci.go.kr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회 최초의 설교집『百牧講演(第一集)』(1921)[1]에 수록된 이범진(?~1947)의 진귀본 "人生의 金錢觀"[2]을 분석하여 그의 금전윤리관을 살펴보고 현재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설교문은 삼일독립운동 이후 일제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문화정치가 착수된 1920년대 초기에 한국기독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정체성을 고취하기 위한 의도로 발행되었으며, 각별히 신자들이 경제에 관한 성경적 윤리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실천적 지침을 담았다.

1.『百牧講演(第一集)』의 역사성과 이범진의 행적

『百牧講演(第一集)』이 빛을 보기 2년 전 민족자결과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거족적 기미 삼일독립운동이 전개되었지만 일제의 무력진입으로 인해 무위로 마무리되면서 한국인들은 실의와 좌절에 사로잡혔다. 더욱이 일제는 무단정치를 지양하고 허울 좋은 문화정치 시행을 공언함으로써 한국인들을 일본 제국주의에 동화시키기 위한 이념적 식민 정치노선을 전개했다. 일제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재임: 1919-1927, 1929-1931)에게 한국인들을 일제 통치이념에 종속시키도록 문화정치 훈령을 내려 제3대 총독으로 파송했다. 문화정치는 외적으로는 무단정치에 비해 온건한 모양새를 취하지만 실상 무단정치를 대신하여 사상적 통치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무'(武)에 의한 공성(攻城)과 '문'(文)에 의한 수성(守成)의 프레임을 악의적으로 응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한일합방의

1) 양익환 편,『百牧講演(第一集)』(京城: 博文書館, 1921), 1-252.
2)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양익환 편,『百牧講演(第一集)』(京城: 博文書館, 1921), 128-134.

www.kci.go.kr

명목을 합리화하여 한국인들을 일제의 국체와 식민체제에 동화시키려는 황국식민화 정략에 불과했다.[3] 민경배 교수는 일제의 문화정치에 대해 고도의 정치성을 발휘한 기만술이며 한국인의 정신을 와해시키려는 권모술수였다고 단언한다.[4] 한경국은『百牧講演(第一集)』출판에 대해 정치상으로는 조선총독부 문화통치에 대응하는 산물로, 교회사적인 면에서는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가 내한한 이래 35년 만에 일궈낸 설교사(說敎史)의 첫 결실이자 삼일독립운동 후 기독교의 파급력이 확장되던 시기에 성취한 큰 성과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5]

이범진은, 국가의 시운을 체념하여 19세기 말 인천으로 낙향한 근위대(近衛隊) 출신 부친 이기웅과 독실한 신자였던 모친 송 씨 슬하에 출생했다. 감리교인으로 인천 내리교회에 출석했으며 영화학교 보통과와 특별과를 졸업했다. 동료 오천석, 유억겸, 김영섭 등이 미국 유학길을 떠날 때 그는 빈곤한 가세를 회복하기 위해 국내에 머물러 영화학교 교원으로 봉직했다. 언변과 화술에 능했던 그는 1921년『百牧講演(第一集)』에 "人生의 金錢觀"을 발표했으며, 같은 해 내리 엡윗청년회 강사로 나서 "人生問題와 基督敎"를, 1922년에는 "有效生活"을 주제로 연설했다. 1929년에는 경북지방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 '기근구제회' 활동에도 솔선했다. 인천 용동교회(龍洞敎會) 전도사, 동아일보 인천지국장, 엡윗청년회와 고전국악

3) 안수강, "이기풍(李基豊) 목사의 성화담론 분석-그의 "新造의 人"(1922)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6(2020), 149.

4) 민경배,『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354. 일본은 한일합방 직후 무단정치, 삼일독립운동 이후 문화정치, 1930년대는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선회했지만 모든 과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식민지배와 수탈이 지속된 일관된 정책이었다. 土肥昭夫,『日本 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 歷史』, 김수진 역,『日本基督敎史』(서울: 기독교문사, 1991), 281.

5) 한경국, "한국 최초의 설교집 백목강연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54(2017), 146-147.

www.kci.go.kr

단체 이우구락부(以友俱樂部)를 거쳐 항일단체 신간회(新幹會)의 핵심 멤버로 활약했다. 정치역량이 뛰어났던 그는 해방 후 초대 인천시장 임홍재, 입법의원 하상훈과 양재박 등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해주었다. 1945년 10월 하상훈, 전두영 등과 함께 인천 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정계에서 소신을 펴보지 못한 채 2년 후인 1947년에 소천했다. 그는 애국지사로, 언론가로, 특히 인천 지역의 사회운동가로 존경받는 인물이며 개항 이후 신문물이 도입되는 와중에도 국악 보존에 힘썼다.[6] 이범진의 삶과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 행적에 대해서는 신태범의 『仁川 한 世紀: 몸소 지켜본 이야기들』(1983)에만 소개되어 있을 뿐 다른 문헌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1910년 경술국치와 1919년 삼일독립운동의 좌절, 이후 이념적 문화정치로 이어지는 험난한 시대적 질곡을 고려할 때 『百牧講演(第一集)』은 다음 두 가지 관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함축한 문헌이다.

첫째, 『百牧講演(第一集)』은 1920년대 초 일제의 사상공작에 저항하여 영적 성전(聖戰)을 치를 수 있었던 최선의 저작이었다. 당시 한국교회는 신앙을 진작시키기 위한 문서들을 간행하여 배포함으로써 복음전파의 활로를 모색했다. 『百牧講演(第一集)』은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 구어체로 작성되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을 대상으로 쉽게 대중화할 수 있는 책자였다.

둘째, 이 설교집은 이듬해 1922년에 빛을 본 『宗教界諸名士講演集』(1922)[7]과 더불어 당대를 대표하는 설교집이었고 이 두 권의 설교집은

6) http://blog.daum.net/alzade57/17942777(2021년 4월 18일 접속). 김윤식, "또 다른 이우구락부 멤버 이범진"; 신태범, 『仁川 한 世紀: 몸소 지켜본 이야기들』(서울: 홍성사, 1983); 『百牧講演(第一集)』 목차. 인천 이우구락부는 조선정악전습소(朝鮮正樂傳習所)와는 달리 교육활동이 아닌, 음악회를 주최하는 일과 후원 사업에 힘썼고 회원들이 음악회에 직접 출연하여 전통사회에서 문인들이 즐기던 음악을 연주했다. 임혜정, "근대 정악(正樂)의 전개와 인천의 음악인들," 「인천학연구」 1-21(2014), 104.

www.kci.go.kr

문화정치 초엽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심을 고취하는 상승효과(synergistic effect)를 창출할 수 있었다.『宗教界諸名士講演集』은 YMCA 기관지「青年」 편집자였던 한석원 목사가 20인의 교역자가 제출한 원고 20편을 편집하여 출간했다. 이 설교집에는 길선주, 김창준, 박동완, 박희도, 신석구, 이필주, 정춘수 등 삼일독립운동 민족대표자들이 기고한 7편의 옥고가 포함되어 있다.

2. 문헌 출판 정보

이범진의 글 "人生의 金錢觀"이 게재된『百牧講演(第一集)』은 1921년 9월 경성(京城) 박문서관(博文書舘)에서 발행되었다. 한자 서명 위에는 *Sermons by One Hundred Pastors & Teachers Vol. 1*이라는 영문 서명이 별기되어 있으며 총 252면 분량이다. 한자는 읽기 쉽도록 우측에 작은 활자체로 한글 음이나 간결한 풀이를 병기했고, 한 단 내려쓰기 체제를 적용했다. 출판정보에 기록된 발행시점 '大正 十年 九月 十五日'은 주후 1921년도에 해당된다. 편집자는 대영성서공회(大英聖書公會)에서 시찰(視察)로 봉직하던 양익환이고, 인쇄는 경성 공평동 대동인쇄주식회사(大東印刷株式會社)의 김중환이 담당했다. 판매처는 종로 소재 동양서원(東洋書院)과 조선야소교서회(朝鮮耶蘇教書會) 두 곳이며 권당 70전(錢)에 발매되었다. 최병헌은 "小引"에서 성경 보급과 강연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익환 시찰에게 백 사람의 설교문을 엮어 간행하도록 당부했다고 출판 동기를 밝혔다.[8]

이 책은 백인(百人)의 설교문을 총 4권의 시리즈 책자로 간행하고자 기획했던 것이지만 첫 25인의 글을 1921년 초판과 이듬해 재판을 내는

7) 한석원 편,『宗教界諸名士講演集』(京城: 活文社書店, 1922), 1-242.

8) 최병헌, "小引," 양익환 편,『百牧講演(第一集)』, 1-2("小引"과 "序文" 편의 면수).

www.kci.go.kr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최병헌, 김영제, 이명혁, 허엽, 차형은, 조종범, 이범진, 변영서, 윤치호, 이명직, 홍순탁, 김응태, 신준려 등 22명의 한국인들과 아펜젤러(亞扁薛羅), 녹스(Robert Knox, 魯羅福), 게일(James S. Gale, 奇一) 선교사들의 글 세 편 등 도합 25편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에 기술된 당시 저자들의 재직 이력에 의하면 이범진은 인천 용동교회 전도사로 시무하고 있었다. 그는 "人生의 金錢觀"이라는 제하에 "大槪 人生의 生活이 其 家産이 裕足ᄒᆞᆫ 디 잇지 아니ᄒᆞ니라"(누가복음 12:15)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정하여 설교문을 작성했다.

3. 본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이범진의 진귀본 단편사료를 고찰한다는 점에서 자료상의 한계점이 있지만 미시적 관점(micro-perspective)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자가 탐색한 바로는, 그동안 이범진에 대한 사상이나 행적을 고찰한 연구가 추진되지 않았다. 해방 전 목회자들은 현 시대와는 달리 글을 남길 수 있는 수월한 여건이 아니었을 뿐더러 단지 한두 편 정도의 글만 남긴 채 이름 없이 사라져 간 인물들이 허다했다. 이 연구는 을사늑약, 한일 강제병탄과 무단정치, 삼일독립운동의 좌절과 문화정치라는 고난의 현장에서 지교회를 섬기면서 기독교윤리관을 고양하고자 『百牧講演(第一集)』에 글을 남긴 이범진의 사적(事跡)을 새롭게 발굴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둘째, 그의 "人生의 金錢觀"은 문화정치라는 사상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독교인의 신앙심과 기독교세계관을 선양하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그는 미시적 실천 강령으로서 금전윤리를 제시하여 기독교윤리 영역에 작은 풀뿌리를 내리고자 했다. 특별히 이 문헌은 오늘날 기독교세계에서

www.kci.go.kr

도 맘몬이즘(mammonism)이 체질화되고 점차 물질주의에 경도되어가는 탈선을 고려할 때 기독교인들의 영성을 성찰하게 해주는 시의성 있는 교훈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百牧講演(第一集)』에 게재된 이범진의 "人生의 金錢觀"을 '금전윤리관'이라는 주제로 고찰할 것이며 그 의미를 기독교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금전에 관한 윤리의식〉과 〈교훈의 현재적 함의〉을 각각 별개의 장(章)으로 설정하여 금전윤리에 관한 그의 담론을 전개하고자 한다.

II. 금전에 관한 윤리의식

이범진이 구사하는 금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재물 혹은 경제 단위로 확장하여 범주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가 설교문 제목에 명시한 '금전'이라는 원제의 의미를 살려 '금전윤리' 혹은 '금전윤리관'이라는 표현을 구사하고자 한다. 그는 "我等 信者가 金錢을 엇더케 想覺홈이 必要훈가"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인생을 세 부류로 구분하여 윤리의식을 논증함으로써 각 부류의 금전관에 대한 소신을 펼쳤다. 그가 제시한 세 부류의 관점은 일반인의 금전관, 위인의 금전관, 기독교인의 금전관 등으로 대별된다.[9]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류는 실상 세 번째 부류인 기독교인의 금전관을 염두에 둔 선행 도입단계에 해당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에게 베푸신 성훈(聖訓)에서 답변을 탐색하는 구도로 전개되어 있다. 이 설교문을 대하면서 유념해야 할 사안으로서, 그는 일반인의 금전관과 위인의 금전관을 보편적 상식과 건전한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했다는 점이며, 이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소화함으로써 기독교윤리로 승화해가려는 노력을 경주

9)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128.

www.kci.go.kr

했다는 점이다.

1. 일반인의 금전관에 대한 이해

이범진은 비기독교인들 가운데 위인열사들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총칭하여 일반인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금전관을 논했다. 그는 일반인의 금전관에 대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과 직결되는 하위의 기초욕구와 아울러 공익(公益)을 위해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고등한 욕구를 한 지평에 병립하여 조명했다. 특별히 윤리적인 관점을 논하는 대목에서는 금전의 선용과 악용을 구분하여 유익성과 병폐를 짚어주었다.

1) '기초욕구' 와 공익을 추구하는 '이상실현 욕구' 의 양면성

이범진은 인생과 금전을 연계하는 필연적 연결고리로서 인간 본성으로서의 '욕구'라는 속성을 개입시켰다. 즉 인생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금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욕구를 다시 하위단계로서의 '기초욕구'와 상위단계로서의 이타적 공익을 위한 '이상실현 욕구'라는 상하 두 단계의 도식으로 구형했다.

첫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과 직결되는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금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세간에 유행하는 격언들과 중국의 전래 경구들을 인용하여 "黃金萬能이니 有錢天地少英雄(돈이 없는 천지에는 영웅도 적음-연구자 주)이니 有錢이면 使鬼神(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음-연구자 주)이라 하며 (중략) 金錢이 人生 生活 上에 極히 必要홈이 올시다 그 얼마나 必要ᄒᆞ냐 ᄒᆞ면 人이 此 世上에 오는 第一步부터 此 世上을 告別ᄒᆞᄂᆞᆫ 最后 一刻ᄭᅡ지"라 하여 인간이 생의 기초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금전이 필수적 도구라고 했다.[10]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뜻을 가진 지사(志士)

www.kci.go.kr

들이나 영웅들이라 할지라도 작은 냉골 방에 신음하는 병든 아내와 양육해야 할 자식들이 있으며 전대에 돈이 없으면 이들 역시 마음에 품은 포부를 실현할 수 없다고 했다.[11] 심리학자 마슬로우(Abraham H. Maslow)는 자신이 확립한 욕구단계설(need hierarchy theory)을 통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12] 등 다섯 단계의 위계로 세분했는데 가장 하위에 배치된 생리적 욕구는 이범진이 논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등 삶의 기초욕구에 대응된다.

둘째, 이범진은 인간이 기초욕구로 만족하는 선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를 상향조정하여 궁극적 상위단계인 이타적 공익을 위한 이상실현 욕구에 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왜 인간이 존재하며 어떤 과업을 성취해야 할 것인지 진정한 존재적 의미와 본분을 논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는 우선 의식주와 같은 가장 하급수준인 기초욕구로부터 시작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치, 법률, 군사(軍事), 교육, 종교, 제반사업, 국가와 사회를 위한 자선사업 등 '제반 공익'을 감당하는 영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했으며 가치 있는 인생의 진면목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했다. 그는, 만일 이러한 이상을 생전에 실현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면 한을 머금고 황천에 가는 인생과 다를 바 없다고 토설했다.

---

10) 위의 글, 128-129. 이범진이 강조하는 '도구'란, 금전은 그 자체가 목적 혹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고상한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자 방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차원을 가리킨다. 이 점에서 그의 금전윤리관은 재화를 바른 방법으로 선용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윤리(deontological ethics)의 성향을 취한다. 이 논점에 대해서는 본 논문 2장 1절 2항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금전의 선용과 악용〉과 2장 3절 1항 〈'금욕정신→금전 선용'의 성훈〉이라는 별도의 주제를 설정하여 상술하고자 한다.

11) 위의 글, 129.

12) 마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은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Abraham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New York: Harper & Row, 1987), 15-23. 이 욕구단계설은 큰 틀에서 신체적 요인 영역(1-2단계)과 심리적 요인 영역(3-5단계)으로 대별된다.

www.kci.go.kr

衣食住로 始作ᄒᆞ야 政治, 法律, 軍事, 敎育, 宗敎, 其他 諸般 事業이 人生에 關係되ᄂᆞᆫ 일은 大小 輕重을 勿論ᄒᆞ고 다 金錢이 必要ᄒᆞᆷ니다. 그 ᄲᅮᆫ만 아니라 英雄으로 ᄒᆞ야곰 落淚케 ᄒᆞᄂᆞᆫ 者도 金錢이오 志士로 ᄒᆞ야곰 歎息케 ᄒᆞᄂᆞᆫ 者도 金錢인가 ᄒᆞᆷ니다. 비록 志士라도 三尺 冷堗에 病든 안히(아내-연구자 주)와 어린 子息은 呻吟苦痛ᄒᆞ며 飢寒을 부리지질(부르짖을-연구자 주) 際家 內에는 ᄒᆞᆫ 줌 穀食이 업고 囊中에는 分錢(푼전)이 업슬 것 갓흐면 (중략) 國家며 社會에 慈善, 敎育 등 諸般 公益에 圓滿한 設計와 充分ᄒᆞᆫ 抱負를 發表치 못ᄒᆞ야 怨恨을 머금고 黃泉에 도라가게 되면 그로 ᄒᆞ야곰 논물을 ᄯᅥ러지게 아니ᄒᆞᆫ들 되겟슴니가?[13]

주목할 논점으로서, 이범진이 논하는 개개인의 기초욕구는 공익을 지향한 이상실현 욕구와 한 지평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접맥된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그의 소양은 절대정신을 주창한 관념철학자 헤겔(George W. F. Hegel)이 논증한 정신세계의 정반합(正反合) 논리와 교섭될 만한 궤적을 갖는다. 헤겔은 "정신은 특수성과 제한성을 부정하고 그 자신을 새로운 민족정신에로 발전시키며 이를 통하여 보다 나은 단계의 자유를 쟁취하여 나간다."[14]고 했다. 이범진은 기초욕구와 이상실현 욕구 양자 간에는 발전적 고양이라는 견고한 연결고리가 개입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기초욕구가 충족되면 그 자체로 만족하여 종료되는 속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인 이상실현 욕구로 전이하여 상향조정된다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 상위 단계에 이르러 제반 공익을 실천함으로써 인생의 참 의미와 진정한 존재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3)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129-130.
14) 김균진, 『헤겔 哲學과 現代神學』(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81. 재인용.

www.kci.go.kr

2)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금전의 선용과 악용

이범진은 통용되는 금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그런데 그 주체자인 인간이 금전을 선용하느냐 아니면 악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말이 선과 악이라는 상반된 두 대척점으로 산출된다고 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말씀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돈에 미혹 당하는 인간의 불화, 탐욕, 만취의 성향을 지적한 것이다.[15] 금전은 전술한 것처럼 선용하면 인생의 기초욕구와 이상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풍속을 문란하게 하고 만악(萬惡)을 야기하며 금전이 지옥의 사다리가 되어 개인, 가정, 사회에 독소로 작용한다.

> 金錢은 萬惡을 産出ᄒᆞ며 罪惡을 紹介ᄒᆞ며 「地獄의 사다리(梯)도 金錢으로 만든다」 ᄒᆞᆷ니다. 現今에 普通 世上 人情을 ᄉᆞᆷ혀보면 金錢으로 말매암아 個人으로브터 家庭이나 社會에 害毒을 ᄭᅵ침이 얼마나 만흐며 또ᄒᆞᆫ 얼마나 甚ᄒᆞ지 안슴니가? (중략) 눈이 어두어저셔 晴盲觀(눈이 멀쩡해도 앞을 보지 못함-연구자 주)이가 됨으로 그 눈압헤는(눈앞에는-연구자 주) 金錢 外에는 父母도 모르고 親舊도 同族도 不顧ᄒᆞ고(돌아보지 않고-연구자 주) 金錢이면 廉恥도 업고 義理도 모르고 社會의 風氣를 紊亂하게 ᄒᆞ며 傷風敗俗(풍속이 문란함-연구자 주)에 奇形怪貌로 된 事實 (중략) 그러고 보니 金錢을 잘 쓰면 됴고(좋고-연구자 주) 金錢萬能이라 ᄒᆞ겟스나 잘못 쓰면 萬惡에 根源이라 ᄒᆞ겟슴니다.[16]

---

15) John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Yitus and Philemon*, trans. T. A. Smail(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137-138. 디모데전서 6:7 주석.

16)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130-131.

www.kci.go.kr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논지로서, 이범진은 금전으로 인해 뒤틀려진 개인 내면의 심성과 외연(外延)으로서의 대인관계 단절을 한 지평 위에서 인과관계(cause and effect)로 엮어낸다는 점이다. 그는 금전에 욕심을 품으면 눈이 흐려져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청맹관이 되고 염치와 의리를 상실하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며 그 결과 외적으로 모든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폐단이 초래된다고 경계했다.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 형제 사이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나아가 친구, 동족과의 사이에도 괴리가 발생하여 결국 외톨박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그가 동기론적 윤리관(動機論的 倫理觀)을 통해 금전윤리를 관철하는 대목이다. 동기론적 윤리관은 마음 내면이 구심점이 되어 삶의 전 지평에 실천적 행위로 외연된다는 확산의 원리라는 체계적인 논점을 갖는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Κ$\alpha\rho\delta\acute{\iota}\alpha$)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마가복음 7:20-23)라고 가르치셨으며 내면으로서의 마음과 행위로서의 외면을 양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셨다. 카르디아로서의 마음은 종교적이자 도덕적 품성을 갖는 인간 자신을 가리키며 애정, 열망, 감정, 욕구가 좌정해있는 중심 처소이다.[17] 또한 이 카르디아는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생애를 추구하는 종교의 좌소(座所)에 해당된다.[18] 이범진은 바로 이 논리를 통하여 금전에 집착하는 탐심이 모든 인간관계를 해친다는 논지를 도출해내었다. 이는 내연(內燃)과 외연을 하나의 고리로 연결하는 고도의

17) Herma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119.

18) Louis Berkhof, ***Systemaic Theology***, 고영민 역, 『벌콥組織神學: 序論』(서울: 기독교문사, 1985), 180-181.

www.kci.go.kr

정제된 윤리의식을 보여준다.

2. 위인의 금전관에 대한 이해

이범진은 일반인의 금전관에 이어 위인들의 가르침과 행실을 소개하여 일반인의 금전관에 비해 한층 더 고등한 금전윤리를 다루었다. 그가 제시한 위인들이란 비록 비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탁월한 도덕성과 이성적 사고를 통해 가르침을 베푼 동서고금의 성현들과 철학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는, 위인들이 남달리 금전을 초연(超然)하는 신념을 지녔다는 점을 포착하여 이들의 절제된 금전관에 주목했고 이 논지를 통해 금전은 단지 인생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과 방편일 뿐 금전의 주체자인 인간존재와 혼동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교훈했다.

1) 참된 인성을 구현하기 위한 초연의 신념

이범진은, 위인들은 합리적인 금전윤리로 민중을 선도하고 가르침을 전수한 선각자들이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이들은 금전욕을 초연하는 신념을 체질화하여 고결한 인성을 갖춘 현자들이었고 이 신념을 통해 건전한 금전윤리를 내면화함으로써 금전이 초래하는 각종 병폐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이해했다. 이들은 비록 가난과 생활고에 시달려 굶주리고 헐벗는 상황이 골수에 사무쳐도 금전욕을 다스리는 절제된 삶을 살았으며 대표적인 인물로 안회(顔回, 顔子, B.C. 5-6C)를 비중 있게 소개했다. 안회는 전란으로 혼란했던 중국 춘추시대 말엽의 인물이다. 그는 중원의 철학사상을 대변하던 공자의 수제자였으며 일생 가난을 초극(超克)하여 도(道)를 즐긴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산 현자로 추앙받는다.

偉人의 金錢觀, 이는 一般의 金錢觀보다는 卓越ᄒᆞᆫ 点이 만습니다. 自古로

www.kci.go.kr

> 物質에 豊富ᄒᆞᆫ 者 精神上 貧乏이 만코 罪惡에 沈淪이 만흠으로 古者 聖賢은 이를 極히 注意ᄒᆞ고 삼가ᄂᆞᆫ 일이올시다. 飢寒이 到骨(굶주림과 헐벗음이 뼈에 사무침-연구자 주)ᄒᆞᆯ지라도 金錢에는 沒 交涉ᄒᆞᆫ 實例가 不少ᄒᆞ거니와 先賢 中 顔子의 安貧樂道(비록 가난하더라도 거리낌 없이 도를 즐김-연구자 주)ᄒᆞᆷ도 其 一例라 ᄒᆞ갯슴니다. 此에 對ᄒᆞ야 東西洋 賢哲의 明訓도 만습니다.[19]

안회는 본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생 곤궁한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평온한 마음으로 도를 연마했다. 그는 한시도 학문을 게을리 한 적이 없었고 평생 스승인 공자를 섬기며 관직에도 출사하지 않았을 정도로 세속의 부귀영화에 초연한 삶을 산 인물이었다. 그래서 공자는 안회를 덕행이 가장 훌륭한 제자로 자부하여 어진 현자라고 칭찬했다.[20] 이범진은 안회의 삶에 대해 비록 그가 빈곤한 삶을 살았고 30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증삼(曾參, 曾子)이 그를 대신하여 공자의 학풍을 잇는 후사가 되었지만 그가 보여준 위인의 금전관은 후세 사람들에게 충직한 사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이 언급한 현자들이 비록 기독교 세계와는 거리가 있지만 이들이 이성을 합리적으로 발휘하여 금전윤리를 실천한 '초연의 신념'을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정평했다.

2) 인간과 금전의 지위(존재) 구분

이범진이 위인들에게서 발견한 또 하나의 탁월한 금전윤리는 '인간과 금전의 지위(존재) 구분'이라는 관점이다. 즉 주체와 객체의 문제이다. 그는 금전 그 자체와 금전을 주관해야 할 주체로서의 인간존재를 혼동하지 말 것을 적시했다. 그는 흔히 인간의 삶속에서 금전윤리가 파괴되는 적나

19)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131.
20) 김세중, 『공자말씀』(서울: 스타북스, 2011), 20.

www.kci.go.kr

라한 폐단으로서 돈이 인간의 우위를 점하여 인간이 수전노로 전락하는 주객전도의 불합리한 행태를 지적했다. 칼빈(John Calvin)은, 인간은 물질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탁월한 존재이며 이 형상은 창조 자체에 있어서도 최고의 위치(the highest place)를 차지한다고 했다.[21] 반틸(Cornelius Van Til)이 고백한 것처럼 실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 한도 내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다.[22] 이범진은 서양철학에서 회자되는 가르침과 공자의 명훈(明訓)을 인용하여 인간은 금전을 사용하는 주체자이며 금전은 인간에게 종속된 물질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화폐가 인간의 우위를 점하는 모순은 앞서 '일반인의 금전관에 대한 이해'에서 논한 윤리적 관점에서의 금전의 악용과도 직결되는 내용이다.

> 西哲은 닐으ᄃᆡ(서양 철학은 이르되-연구자 주)「金錢은 吾人의 善ᄒᆞᆫ 使喚이오 決코 上典은 아니니라」(Money is servant but is not master) ᄒᆞ엿스며 東洋聖人 孔子는 닐으ᄃᆡ「舟行水中舟無恙 水入舟中舟自浸(항해 중인 배는 근심이 없으나 배에 물이 차면 침몰한다-연구자 주)」ᄒᆞ엿슴니다. 此 兩者 個 明訓은 果然 金錢과 人의 地位를 判明ᄒᆞᆫ 거시라 ᄒᆞᆯ만 ᄒᆞ외다.[23]

아브레흐트(Paul Abrecht)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부의 증대가 발생하고, 재화에 정신을 팔고, 물질주의에 심취할수록 인간 본연의 가치는 그만큼 추락할 수밖에 없는 위험에 직면한다고 경고했다.[24] 이범진은 서양 격언

---

21)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trans. Ford L. Battl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Ⅰ. 15. 3(186면), 15. 4(189면).

22) Cornelius Van Til, ***The Defense of the Faith***(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13.

23)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131-132.

24) Paul Abrecht, ***The Churches and Rapid Social Change,*** 정하은 역,『교회와 급변하는 사회』(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183.

www.kci.go.kr

을 인용하여 인간이 상전이지 맘몬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설파했으며 인간과 맘몬 양자의 관계를 엄격하게 상하 주종관계로 묘사했다. 또한 '선박에 물이 차면 침몰한다'(水入舟中舟自浸)는 공자의 당연지사 귀결의 정언을 통해 결코 금전을 인간에 견주어 비교할 수 없으며 인간의 위치가 본질적으로 고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인간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 인간이 물질을 상전으로 모실 수 없으며 물질이 인간의 삶을 지배할 수도 없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구축했다. 그가 분석하여 간파한, 인간과 금전 양자의 지위를 철저하게 구분 짓는 성현들의 가르침은 실상 인간이 고유한 존엄성을 갖는 신령한 인격체라는 점을 조명하여 부각된 논지이다. 그는 이 단계에서 물질에 관한 바른 이해를 기독교인의 금전윤리 의식에 접근하여 풀어가고자 시도했다.

3. 기독교인의 금전관에 대한 이해

이범진은 '일반인의 금전관'과 '위인의 금전관'을 논한 후에 '기독교인의 금전관'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했다. 그가 앞서 일반인의 금전관과 위인의 금전관을 논한 것은 최종 단계에서 기독교인의 금전관을 논증하기 위한 선행 담론에 해당된다. 그는 먼저 이 두 단계를 도입하여 보편적 금전윤리에 관한 화제를 진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통해 성경적 금전윤리관을 확립하려는 데 방점을 두었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3)가 작시한 찬송 가사 "웬일인가 내 형제여"("Why not believe, my brother")를 중심으로 '금욕정신→금전 선용'의 성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의 사회환원,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 등을 구현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www.kci.go.kr

1) '금욕정신→금전 선용' 의 성훈(마태복음 4:4; 마가복음 10:24-25)

이범진은 금전을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의 문제는 앞서 일반인의 금전관에서도 소신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문제를 기독교윤리 관점에서 한층 비중 있게 짚어주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금전을 선용할 것을 논증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에 임하실 즈음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신 후 사탄에게 받는 유혹에 대처하실 때 말씀하신 "人이 餠(떡- 연구자 주)으로만 살 거시 아니라 ᄒᆞ시고"(마태복음 4:4) 이 구절과 마가복음 10장 24절과 25절에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난 후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小子들아 財物을 依支ᄒᆞᄂᆞᆫ 人은 天國에 드러가기 어려울진뎌 駱駝가 針孔으로 드러나가ᄂᆞᆫ 거시 富者가 上帝國(천국-연구자 주)에 드러가ᄂᆞᆫ 것보다 쉬우리라"는 가르침에 근거하여 금전을 선용할 것을 피력했다.[25] 바클래이(William Barclay)는, 소유욕은 인간의 성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본성적 욕망이며 부에 대한 욕심은 사람의 눈이 고상한 것을 외면하게 만든다고 했다.[26] 마태복음 4장 4절은 하나님의 말씀(명령)과 의지가 생명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참 면목을,[27] 마가복음 10장 24절과 25절은 재물에 대한 집착을 경고한 구절들이다.[28] 이범진은 바로 이 점을 인프라로 삼아 '금욕정신(내면)→금전 선용(외면)'이라는 유

25)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132.

26) William Barclay, *Ethics in a Permissive Society,* 강형길 역,『바클레이의 기독교윤리』(서울: 보이스사, 1988), 222, 224.

27) 칼빈은,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사탄에 대항하는 방패로 사용하셨으며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달려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했다. John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 I*, trans. A. W. Morrison(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137-138. 누가복음 4:4(마태복음 4:4) 주석.

28) 헨리는 이 부자 청년이 영생도 손에 넣고 이 세상의 재물도 보존할 수 있는 양자 충족의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라고 이해했다. Matthew Henry, *Matthew Henry's Commentary: Matthew to John*(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519-520. 마가복음 10:17-31 주석.

www.kci.go.kr

기적 상호관계를 설정했다. 이 도식은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절제하는 마음이 부족하거나 내면에 금욕정신이 결핍되어 있으면 자신이 소유한 금전을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이타적 헌신에 선용할 수 없다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는 금전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그 금전을 사용하는 자가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떻게 선하게 활용할 것인지의 여하에 따라 '義의 生光' 혹은 '惡의 害毒'이라는 전혀 상반된 결과가 산출된다고 했다.

> 여러분! 그러면 我等은 이 敎訓(마태복음 4장 4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 마가복음 10장 24절과 25절의 재물에 대한 집착 경고-연구자 주)을 實行ᄒᆞ려고 金錢을 避ᄒᆞ며 囊中에 分錢(푼돈-연구자 주)ᄭᅡ지라도 다 내여ᄇᆞ림이 나흘가요. 아- 이갓치 誤解치는 아니ᄒᆞ시겟지오. 金錢萬能이라 ᄒᆞ면 金錢 그거시 졔 스사로 能ᄒᆞᆫ 거슨 아니며 金錢이 萬惡의 源이라 ᄒᆞ면 金錢 그 物件이 惡ᄒᆞᆫ 거슨 아니올시다. 金錢이 本是 善惡을 가진 거시 아니오 다만 그 使用者의 方法如何로 말매암아 義의 生光이 되기도 ᄒᆞ고 惡의 害毒이 되기도 ᄒᆞᆷ니다.[29]

이범진이 구형한 '금욕정신→금전 선용'의 도식은 기독교인이 갖추어야 할 고고한 영성의 깊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금욕'과 '금전 선용' 두 영역을 한 지평에서 아우르며 금전 선용의 단초와 중심 모티브를 예수님께서 주신 금욕정신의 성훈에서 찾았다. 그가 보여준 이 도식은 기독교인이 취해야 할 금전윤리의 시금석이자 초석에 해당된다.

2)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의 사회환원(마가복음 10:21; 마태복음 6:20)

이범진은 '금욕정신→금전 선용'의 성훈을 논한 후에 연장선상에서 이 가르침을 적용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상에서 기독교인이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헌신의 단계이다. 그는 예수님께

29)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132-133.

www.kci.go.kr

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마가복음 10장 21절 "가셔 汝의 所有로 艱難ᄒᆞᆫ 者를 주라 然ᄒᆞ면 天에 寶貨가 잇스리라" 이 말씀과 마태복음 6장 20절 "財物을 하늘나라에 싸하두라" 이 구절을 제시했다.[30] 마태복음 6장 20절은 21절에 기록된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과 직결된다. 이 21절은 마음을 하나님과 보물 양자에 동시에 둘 수 없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심중에 하나님만을 모시라는 역설적 취지로 기록된 말씀이다.[31] 금전은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여겨질 만큼 그 관계는 본질적이며, 인간의 삶과 영혼 안에 하나님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존재이기도 하다.[32] "財物을 하늘나라에 싸하두라"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마가복음 10장 21절과 마태복음 6장 20절 두 구절은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기 위한 사역이 기독교인들이 삶의 콘텍스트에서 실천해야 할 매우 긴요한 과업들 중의 한 영역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아래 인용문에서 이범진은 기독교인들이 금전을 선한 일에 지출하여 제반 공익과 자선사업 등 의로운 사업에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는 특별히 기독교인 각자가 갖추어야 할 영성과 관련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금전을 취하지 말 것과 재물에 유혹당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재물로 인해 실족한다는 경고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기록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훈계한 바울의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범진은 '금욕정신→금전

30) 위의 글, 133.

31) John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 I*, 216. 마태복음 6:21 주석; William Hendriksen, 김만풍 역,『헨드릭슨 주석: 마태복음(상)』(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517-518. 마태복음 6:21 주석.

32) 이재명, "경제-돈과 사람," 김형민 외,『가치가 이끄는 삶』(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3), 198.

www.kci.go.kr

선용'의 과업을 실천한 근세기의 모범적인 인물들로서 미국의 강철 왕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와 스웨덴의 저명한 과학자 노벨(Alfred Nobel, 1833-1896)을 들었다.

> 金錢이 쓸대 업ᄂᆞᆫ 거시라던지 또는 金錢이 罪惡에 沈淪되ᄂᆞᆫ 거슨 아니올시다. 義로운대 잘 쓰면 하ᄂᆞ님의 賞給을 밧을 거시오, 信仰 上에 무슴 害롬이 업슬 거시올시다. 現代 財産家로 諸般 公益에 잘 쓴 사ᄅᆞᆷ들의 實例가 不少ᄒᆞᆷ니다마는 其中에 로벨 賞金으로 世界에 功獻이 잇ᄂᆞᆫ 者들을 爲ᄒᆞᆫ 金錢이나 카넥갓흔 富豪의 諸般 公益과 慈善事業에 使用ᄒᆞᆫ 그 金錢이 如何ᄒᆞ다 ᄒᆞ오리가. 然ᄒᆞᆫ 則 信者의 金錢觀은 一言以蔽之ᄒᆞ고(한마디의 말로써 능히 그 전체의 뜻을 다 말함-연구자 주) 義 안인(의롭지 않은-연구자 주) 金錢은 取치 말며 此에 浸或ᄒᆞ지 말고[33]

부연하여 주목할 점으로서, 이범진은 금전윤리와 관련하여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수완을 통해 추구해야 한다는 의무론적 윤리관(義務論的 倫理觀)의 투철한 영성을 보여준다. 의무론적 윤리란 일을 수행함에 있어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칸트(Immanuel Kant)가 주장한 범주적 명령(categorical imperative)의 속성을 가지며 '도덕법-명령-의무-순종'이라는 윤리체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내가 무엇을 행할까?"라는 질문이 "법이 무엇이냐?"가 대답되어짐으로써 해결된다.[34] 이범진의 소신에는 아무리 선한 명목으로 금전을 지출한다 할지라도 애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이라면 그 지출 또한 선한 의지로 간주할 수 없다는 원칙이 배어있다. 이 가르침과 관련하여 신명기 23장 18절에서는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33)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133.
34) 원종흥, 『기독교철학과 기독교윤리』(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5), 146.

www.kci.go.kr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라고 단언하여 지출뿐 아니라 수입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해야 한다는 금전윤리의 정곡을 투사한다. 랑게(Johann P. Lange)는 이 구절 주석에서 음란한 수입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음탕한 우상으로 취급하는 것과 마찬가지 행위라고 규정한다.[35]

3)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의 구현(찬송 "웬일인가 내 형제여")

이범진은 "人生의 金錢觀" 마무리 단계에서 기독교인은 비록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엄연히 공공성이 부여된 재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이 논증을 전개하는 대목에서 두 가지의 소신을 밝혔다. 첫째는 청지기정신(stewardship)이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비록 自己의 財産이라도 決코 自己의 私有物이 아니오 此 世上에셔 하ᄂᆞ님의 모든 經倫을 解決ᄒᆞ시랴고 自己의게 暫間 맛기여두신 거스로 想覺ᄒᆞᆷ이 올흘 줄노 암니다."[36]라고 고백하여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정신을 강조했다. 본래 청지기란 소유주의 뜻대로 재산을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는 재물의 수입과 지출에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여야 한다.[37] 둘째, 이 사고는 청지기정신과 아울러 심층 소명의식까지 외연하여 짚어주고 있다. 직업윤리에서는 신(神)께서 부여하신 재능을 활용하여 감당해야 할 일 혹은 직무를 가리켜 '직' 혹은 '천직'(vocation, profession, beruf)이라

35) Johann P. Lange, *The Book of Deuteronomy,* 김진홍 역, 『랑게주석: 신명기』(서울: 백합출판사, 1979), 410. 신명기 23:15-18 주석.

36)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133-134.

37) 서신혜, "기독교 전래에 따른 일제 강점기 경제 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 「기독교사회윤리」 26(2013), 165.

www.kci.go.kr

는 용어를 구사한다. 이 직은 생업으로서의 '업'(業, occupation, business)과 구별된다.[38] 이범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륜을 지상에 수행하시기 위해 기독교인 각자에게 관리의 책임을 부여하신 것으로 확신한다. 기독교인은 응당 하나님께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직분을 은사로 주셨다는 점에서 이를 소명감으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탁월한 면은 고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제정해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39]

이범진은 글을 마감하면서 "웬일인가 내 兄弟여" 이 찬송의 3절과 4절을 기록했다. 이 찬송 가사는 존 웨슬리(John Wesley)와 함께 감리교를 창설했던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가 작시했다. 곡조는 스코틀랜트 음악교사 윌슨(H. Wilson, 1766-1824)이 1800년에 교육 목적으로 스코틀랜드 민요를 편곡한 것으로 원래는 4분의 4박자 또는 4분의 2박자로 되어 있었다.[40] 이범진은 총 5절 가운데 의도적으로 3절과 4절만 발췌하여 소개했다. 가사는 현 공인찬송가인 『새찬송가』에 수록된 내용과 일치하며 1920년대 당시의 가사 3절과 4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3절) 웬일인가 내 兄弟여 財物만 取타가 이 世上 物件 불탈 때 汝도 타겟고나

(4절) 웬일인가 내 兄弟여 罪惡에 ᄆᆡ여서(매여서-연구자 주) 한업시 苦生ᄒᆞᄂᆞᆫ 것 춤 못보겟고나[41]

『百牧講演(第一集)』이 발행된 1921년에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1908년도

38) 장원종, 김동현, 이한구, 『職業과 倫理』(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37.
39) 장기영, "'구원 받은 신자는 창조세계를 선물로 받는다': 루터의 창조세계 긍정과 신자의 일상적 삶의 책임," 「韓國敎會史學會誌」 50(2018), 22.
40) 한국찬송가공회 편, 『새찬송가』(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522장 하단 주석.
41)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134.

www.kci.go.kr

에 공동 발행한『찬숑가』가 통용되고 있었으며 이 찬송집에 "웬일인가 내 兄弟여"가 수록되었다.[42] 이범진은 총 5절로 편성된 가사 중에서 "人生의 金錢觀"이라는 설교문 주제에 맞추어 의도적으로 '재물', '이 세상 물건' 등이 기록된 3절을 선택했고 재물에 얽매여 살면 그릇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의도로 구사된 '죄악', '한없는 고생' 등의 용어들이 열거된 4절을 소개했다. 그는 3절과 4절을 전후 인과관계로 파악했으며 특별히 내려쓰기 2단 체제로 3절을 상단에 4절을 하단에 배열하여 두 절의 관계성을 상하로 대조해볼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는 설교문 말미에서 각별히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을 피력했다. 이로써 앞서 일반인의 금전관과 위인의 금전관에서 논하기 어려웠던 성경적인 논점들을 기독교인의 금전관에서 심층 논증했으며 기독교 금전윤리의 탁월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일반인의 금전관과 위인의 금전관에서는 단지 철학적 사유와 신념(belief, conviction) 체계에 근거하여 윤리를 논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독교인의 금전관에서는 '코람 데오'(coram Deo)라는 신전의식과 신앙의 경지에서 소신껏 담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그가 논한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의 구현'은 '금욕정신→금전 선용'의 성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의 사회환원'과 더불어 한 지평 위에 삼중적 양태로 입체화되어 있으며 기독교인이 취해야 할 금전윤리관의 진수를 보여준다.

42) 장로교와 감리교는 1908년부터『찬숑가』를 공용했고, 1931년에 새로『신뎡찬숑가』를 발행했다. 김봉희,『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1882-1945)』(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7), 50.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찬송가 문헌을 볼 것. cf. Alexander Albert Pieters,『찬숑가』(京城: 朝鮮耶蘇敎書會, 1925); 朝鮮耶穌敎聯合公議會,『신뎡찬숑가』(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931).

www.kci.go.kr

III. 교훈의 현재적 함의

이범진이 "人生의 金錢觀"에서 전개한 일반인의 금전관, 위인의 금전관, 기독교인의 금전관을 통해 숙고해야 할 시의성 있는 교훈으로 동기론적 윤리를 실천할 것, 금전을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편으로 선용할 것, 청년층의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 부의 사회환원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성찰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인은 동기론적 윤리관을 마음 내면에 확립해야 한다. 이범진은 인간의 심성을 지적하여 내면에 도사린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건전한 금전윤리를 정립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전에 욕심을 품으면 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청맹관으로 전락하고 염치와 의리마저 상실하게 되며 그 결과 부모, 형제, 친구, 동족과의 사이가 갈리는 비극을 자초한다고 경계했다. 그는 이 동기론적 윤리관을 위인의 금전관에서는 초연의 신념을, 기독교인의 금전관에서는 '금욕정신→금전 선용'의 성훈을 통해 논증했다. 윤리적인 행동의 결과에는 성품과 역량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담겨 있다는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상훈은 윤리의 성품적인 측면에는 성실성, 동기, 의도가 포함되고 역량적인 측면에는 능력, 기술, 성과, 실적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43] 이범진이 중시하는 염치와 의리, 초월의 신념, '금욕정신→금전 선용'의 도식은 성품적인 영역에 위치한다. 그는 금전은 인생의 삶속에서 기초욕구와 이상을 실현하는 욕구를 추구하게 하는 필수적 요소가 된다고 보았지만 마음 내면에 초연의 신념과 금욕정신을 갖추지 못하면 오히려 금전은 인간을 타락의 나락으로 침륜하게 하는 촉매제가 된다고 충고한다. 금세기 개개인의 의식과 각성체계는 목적격으로서의 'me'보다는 주격으로서의 'I'가 강조되는 개인주의

43) 이상훈, "직업-소명으로서의 직업과 윤리," 김형민 외, 『가치가 이끄는 삶』, 182-183.

www.kci.go.kr

처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품성의 내면보다는 외적 영역으로서의 역량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동기론적 윤리관을 훈련하는 일은 왜곡되고 희석된 내면의 성품을 보완하여 역량적인 측면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금전을 맘몬이즘으로서의 숭배의 대상이 아닌, 수단과 방편으로 선용함으로써 바른 금전윤리를 확립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재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 재화는 숭배의 대상으로 전환되고 만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πλεονεξία)은 우상숭배라고 고발했다. 탐심으로 번역된 '플레오네크시아'는 마땅히 취해야 할 것 이상을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움'(covetousness)을 뜻하는 용어로 내면의 품성이 질적으로 변이(變移)되는 현상을 지적한다.[44] 이범진은 동서양 위인들이 보여준 뚜렷한 금전윤리는 '인간과 금전의 지위 구분'이었다며 재화 그 자체와 재화를 다스리는 인간 존재를 혼동하는 일상의 불합리한 행태를 직시했다. 이장형은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는 마음을 상실한 채 탐욕의 노예가 되어 물질주의에 함몰되고 있다"며 심지어 "교회와 신학까지도 잠식시킨 이 무서운 사조가 많은 이들을 탐욕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도박의 세계에 빠져들게 한다."라고 지적한다.[45] 이는 물질이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주체자로 올라설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순이자 부작용이다. 칼빈의 경제윤리에 나타난 것처럼, 화폐는 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며, 이 점을 정당하게 인지한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46] 이 논점은 금전을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편으로 선용해야 한다는 성경적 가르침에 기초되어 있다.

---

44) William Greenfield, *The Greek-English Lexicon to the New Testament*(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148.

45) 이장형, "도박, 사행산업의 번성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33(2015), 214.

46) 이동호, "칼빈의 경제윤리와 디아코니아," 「기독교사회윤리」 43(2019), 205.

www.kci.go.kr

이범진은 재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선하다고 보았지만 금전의 주체자인 인간이 금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따라 선한 도구로 혹은 악한 무기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셋째, 이범진이 금전윤리에서 피력한 청지기정신 및 소명의식을 진지하게 통감해야 한다. 그는, 기독교인은 자신의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사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재산일 뿐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그는 이 점과 관련하여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금전윤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청지기정신과 천직으로서의 소명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이 신성하며 직업과 일, 사회활동 또한 거룩한 '초월의 영역'에 속한다. 이 영역에서 신자가 수행하는 모든 일은 신성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신자는 성스런 청지기이며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47] 이 점과 관련하여 오늘날 한국교회는 특별히 전도양양(前途洋洋)한 젊은 청년들이 이상과 포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진로문제와 헌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상훈은 "청년 고(高)실업시대와 기독교 직업윤리 교육"에서 고용생태계와 취업구조, 청년실업문제, 경제적 보상, 고용안정성, 직업의식 실태 등을 복합적으로 조명하여 "청년층의 경우 기성세대에 비해 의무로서의 직업의식보다는 직업을 수단으로 이해하는 외재적 직업가치 성향이 강하며 그 결과 개인주의적이고 실리주의적인 시각이 자주 발견되고 있다."[48]라고 진단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이 직업을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으로서의 '직'보다는 생업의 방편으로 이해하려는 '업'으로의 가치관을 선호한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47)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 사회," 「기독교사회윤리」 28(2014), 214.

48) 이상훈, "청년 고(高)실업시대와 기독교 직업윤리 교육," 「기독교사회윤리」 29(2014), 381-382.

www.kci.go.kr

추이를 지적한 것이다.

힌손(Leon O. Hynson)이 말한 것처럼 개인의 청지기직은 이기심, 정보의 부족, 또는 협소한 비전 등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며 그 결과 사회윤리가 외면을 받는 탈윤리 현상이 초래된다.[49] 현하 2020년을 전후한 청년층의 현실을 고려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진로 모색, 산학(産學) 연계 퇴조, 좁아진 취업의 문, 비정규직 갈등, 기업 파탄, 해외진출 기회 무산 등의 악조건들이 부가되면서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보다는 불가불 생계유지형의 '업'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심화되어가고 있다. 모두가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텍스트로서의 기독교윤리가 콘텍스트라는 외적인 변인에 의해 좌초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을 성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넷째, 부의 사회환원에 대한 교훈이다. 이범진은 기독교인들이 금전을 선한 일에 지출하여 사회를 향한 제반 공익과 자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적극 권장했으며 이를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들로 카네기와 노벨을 들었다. 사회를 위한다는 것은 인간들이 함께 산다는 사실로서의 실재(factual reality)를 위한 일, 즉 사람들이 함께 사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이어야 한다.[50] 베넷(John C. Bennett)은, 하나님은 공동체의 복리를 원하시며 개개인 모두가 자신이 속한 여러 공동체의 복리를 위한 책임성을 포함한다고 했으며,[51] 콘(Charles P. Conn)은 재정적으로 번영하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 크리스천 공리(公理)로서의 책임을 갖는다고 했다.[52] 부를 축적한 인물들 가운데 사

49) Leon O. Hynson, *Theological Foundations of Wesley's Ethics,* 이희숙 역,『웨슬리의 윤리사상』(서울: 전망사, 1987), 57.

50) 이보민,『기독교사회윤리학』(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286.

51) John C. Bennett, "경제생활의 목표에 대한 신학적 개념," 맹용길 편,『기독교사회윤리』(서울: 기독교문사, 1983), 298.

www.kci.go.kr

회 환원 분야에서 현저한 업적을 남긴 외국기업가들로서 일반적으로 카네기, 버핏(Warren Buffett), 록펠러(John D. Rockefeller), 포드(Henry Ford)와 같은 인물들을 꼽는다.[53] 카네기는 과학, 문학, 미술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 카네기협회를 설치했고 카네기대학과 교육기구를 설립했으며 대학교수회의기금, 대통령기금, 작가기금 등을 조성하여 이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했다. 이외에도 11개 국가에 카네기 명인기금을 마련했으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세워 평화를 위해 공헌한 사람들을 후원했다.[54] 부의 강국 미국은 카네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기업가들이 폭넓은 기부를 통해 부의 사회환원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고 있으며 그 사명의식은 오늘날에도 꾸준히 계승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부의 사회환원을 가장 모범적으로 실천한 대표적인 인물로 1926년 왜정치하에서 유한양행을 설립한 유일한(1895-1971)을 추앙한다. 그는 기업의 목적이 국가와 동포, 사회를 섬기는 데 있다고 천명하여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하고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며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단지 그 관리를 담당할 뿐이라고 선언했다.[55]

1920년대 초엽이었고 더군다나 일제강점기에 망국의 한을 안고 절치부심(切齒腐心)하던 시기였지만 이범진은 당시 사고로는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부의 사회환원을 깨우쳐준 선각자였으며 제반 공익과 자선사업을 위해 이 과업을 적극 권고했을 정도로 시대를 앞서는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이범진이 이 주장을 제기한 지 한 세기가 지났지만 이 과업은 여전히 오늘날 한국기독교인들이 솔선하여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과업으로 주어

52) Charles P. Conn, 한중식 역, 『크리스찬이 본 돈, 경쟁, 성공』(서울: 심지, 1982), 126.
53) 예종석, 『노블레스 오블리주』(파주: 살림출판사, 2006), 89.
54) 汪大海, 『商道與人道: 5000年最有价值的9字商經』, 김동휘 역, 『商道와 人道』(서울: 신원문화사, 2006), 330.
55) 유한학원40년사편찬위원회 편, 『유한학원사십년사』(서울: 학교법인유한학원, 1995), 13.

www.kci.go.kr

져 있다.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이범진이『百牧講演(第一集)』에 발표한 "人生의 金錢觀"을 고찰하여 그의 금전윤리관을 분석했다. 이 설교문은 일제강점기 문화정치가 착수된 1920년대 초엽,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정체성을 교도하고 경건한 삶을 고양하기 위한 일환으로 발행되었다. 특별히 이 설교문은 금전윤리를 제시하여 기독교윤리를 구현하기 위한 영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문헌이다.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금전에 관한 윤리의식〉과 〈교훈의 현재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전윤리와 관련하여 인생을 세 부류로 구분하여 일반인의 금전관, 위인의 금전관, 기독교인의 금전관으로 대별했다. ① 일반인의 금전관을 두 단계로 나누어 하위단계에서는 의식주와 직결된 기초욕구를, 상위단계에서는 이타적 제반 공익을 지향한 고등한 욕구를 조명했다. 그는, 기초욕구는 점차 이상실현 욕구로 고양되며 이 욕구단계에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존재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금전의 선용과 악용을 논하는 단계에서는 금전을 악용하는 경우 개인, 가정, 사회에 독초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동기론적 윤리관을 피력하여 금전욕을 품으면 청맹관이 되고 염치와 의리를 상실하며 부모, 형제, 친구, 동족 등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된다고 확언했다. ② 위인의 금전관에서는 동서양 철인들의 가르침과 처신을 조명하여 초연의 신념에 주목했으며 이들의 절제된 금전관을 중시했다. 그는, 금전은 단지 인생을 영위하는 수단과 방편일 뿐이며, 금전 그 자체와 금전을 다스리는 고귀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존재를 혼동하지 말 것을 설파했다. ③ 기독교인의 금전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훈에 근거하여 성경적 금전윤리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는 예수

www.kci.go.kr

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금욕정신(내면)→금전 선용(외면)'의 성훈, 하나님 나라를 위한 부의 사회환원,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 등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 이범진의 "人生의 金錢觀"이 주는 현재적 함의로서의 교훈은 동기론적 윤리를 실천할 것, 금전을 목적이 아닌 수단과 방편으로 선용할 것, 청년층의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 부의 사회환원 등 네 가지 관점에서 의미심장한 적용점을 보여준다. ① 동기론적 윤리관으로서의 교훈에 주목해야 한다. 이범진이 중시하는 염치와 의리, 초연의 신념, 금욕정신 등은 성품적인 영역에 해당된다. 그는 마음 내면에 이러한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도리어 금전은 인간을 타락시키는 패악의 물질로 작용한다고 경고했다. ② 금전을 수단과 방편으로 선용함으로써 바른 금전윤리를 실천해야 한다. 그는 재화 그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보았지만 금전의 주체자인 인간이 금전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 따라 선한 도구로 혹은 악한 무기로도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③ 또한 청년층의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현재 청년층은 2020년을 전후하여 수업의 질 저하, 진로 모색, 산학 연계 퇴조, 좁아진 취업의 문, 비정규직 갈등, 기업 파탄, 해외진출 기회 무산 등 악조건에 직면하여 소명의식보다는 생계유지형의 '업'을 추구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④ 부의 사회환원에 대한 교훈이다. 이범진은 1920년대 사고로는 쉽게 생각할 수 없었던 부의 사회환원을 깨우쳐준 선각자였다. 오늘날 한국기독교에는 카네기, 버핏, 록펠러, 포드, 유일한 등이 실천한 환원의 정신을 힘써 추진하고 가르쳐야 할 책무가 주어져 있다.

이범진은 일제 식민치하에서 애국지사로, 언론가로, 사회운동가로 활동한 지도자였으며 신문물이 도입되는 과도기에 국악을 보존하기 위해 이우구락부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해방 후 불과 2년 후에 과로로 소천하

www.kci.go.kr

는 바람에 그의 주요행적은 일제 강점기의 극히 제한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안타깝게도 그가 남긴 글은 지금까지『百牧講演(第一集)』에 수록된 "人生의 金錢觀" 한 편만이 발굴되었으며 그동안 그의 사상이나 행적에 관한 연구는 추진되지 않았다. 그가 남긴 가치 있는 보적(步蹟)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의 유작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고찰함으로써 그의 교육활동, 청년운동, 언론사역, 이우구락부 모임 등과 관련된 연구가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www.kci.go.kr

참고문헌

김균진. 『헤겔 哲學과 現代神學』.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1.

김봉희. 『한국 기독교문서 간행사 연구(1882-194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7.

김세중. 『공자말씀』. 서울: 스타북스, 2011.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서신혜. "기독교 전래에 따른 일제 강점기 경제 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 「기독교사회윤리」 26(2013), 149-177.

신태범. 『仁川 한 世紀: 몸소 지켜본 이야기들』. 서울: 홍성사, 1983.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一集)』. 京城: 博文書館, 1921.

안수강. "이기풍(李基豊) 목사의 성화담론 분석-그의 "新造의 人"(1922)을 중심으로." 「기독교사회윤리」 46(2020), 147-178.

예종석. 『노블레스 오블리주』. 파주: 살림출판사, 2006.

汪大海. 『商道與人道: 5000年最有价值的9字商經』. 김동휘 역. 『상도와 인도 : 최선의 삶이 최고의 성공을 낳는다』. 서울: 신원문화사, 2006.

원종흥. 『기독교철학과 기독교윤리』. 서울: 도서출판 한글, 1995.

유한학원40년사편찬위원회 편. 『유한학원사십년사』. 서울: 학교법인유한학원, 1995.

이동호. "칼빈의 경제윤리와 디아코니아." 「기독교사회윤리」 43(2019), 189-217.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 양익환 편. 『百牧講演(第一集)』. 京城: 博文書館, 1921, 128-134.

이보민. 『기독교사회윤리학』.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89.

이상훈.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 사회." 「기독교사회윤리」 28(2014), 193-230.

_____. "직업-소명으로서의 직업과 윤리." 김형민 외. 『가치가 이끄는 삶』.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3, 165-191.

_____. "청년 고(高)실업시대와 기독교 직업윤리 교육." 「기독교사회윤리」 29(2014), 377-413.

이장형. "도박, 사행산업의 번성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고찰." 「기독교사회윤리」

www.kci.go.kr

33(2015), 203-234.

이재명. “경제-돈과 사람.” 김형민 외.『가치가 이끄는 삶』. 서울: 도서출판 동연, 2013, 192-221.

임혜정. “근대 정악(正樂)의 전개와 인천의 음악인들.”「인천학연구」1-21(2014), 79-113.

장기영. “‘구원 받은 신자는 창조세계를 선물로 받는다’: 루터의 창조세계 긍정과 신자의 일상적 삶의 책임.”「韓國敎會史學會誌」50(2018), 7-42.

장원종, 김동현, 이한구.『職業과 倫理』.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朝鮮耶穌敎聯合公議會.『신뎡찬숑가』. 京城: 朝鮮耶穌敎書會, 1931.

최병헌. “小引.” 양익환 편.『百牧講演(第一集)』. 京城: 博文書舘, 1921), 1-2(“小引”).

土肥昭夫.『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歷史』. 김수진 역.『日本基督敎史』. 서울: 기독교문사, 1991.

한경국. “한국 최초의 설교집 백목강연에 대한 연구.”「신학과 실천」54(2017), 145-173.

한국찬송가공회 편.『새찬송가』.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한석원 편.『宗敎界諸名士講演集』. 京城: 活文社書店, 1922.

http://blog.daum.net/alzade57/17942777(2021년 4월 18일 접속).

Abrecht, Paul. *The Churches and Rapid Social Change*. 정하은 역.『교회와 급변하는 사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0.

Barclay, William. *Ethics in a Permissive Society*. 강형길 역.『바클레이의 기독교윤리』. 서울: 보이스사, 1988.

Bennett, John C. “경제생활의 목표에 대한 신학적 개념.” 맹용길 편.『기독교사회윤리』. 서울: 기독교문사, 1983), 278-314.

Berkhof, Louis. *Systemaic Theology*. 고영민 역.『뻘콥組織神學: 序論』. 서울: 기독교문사, 1985.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1)*. trans. Ford L.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_____. *John Calvin's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 Ⅰ, trans. A. W. Morrison*.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2.

www.kci.go.kr

_____. *John Calvin's Commentaries: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Yitus and Philemon*, trans. T. A. Smail. Grand Rapids, Michiga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3.

Conn, Charles P. 한중식 역.『크리스찬이 본 돈, 경쟁, 성공』. 서울: 심지, 1982.

Greenfield, William. *The Greek-English Lexicon to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0.

Hendriksen, William. 김만풍 역.『헨드릭슨 주석: 마태복음(상)』.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6.

Henry, Matthew. *Matthew Henry's Commentary: Matthew to John*. New Jersey: Fleming H. Revell Company.

Hynson, Leon O. *Theological Foundations of Wesley's Ethics*. 이희숙 역.『웨슬리의 윤리사상』. 서울: 전망사, 1987.

Lange, Johann. P. *The Book of Deuteronomy*. 김진홍 역.『랑게주석: 신명기』. 서울: 백합출판사, 1979.

Maslow, Abraham H.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1987.

Pieters, Alexander Albert.『찬숑가』. 京城: 朝鮮耶蘇教書會, 1925.

Ridderbos, Herma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2.

Van Til, Cornelius. *The Defense of the Faith*.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67.

논문투고일: 2021년 01월 28일
심사개시일: 2021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1년 04월 21일

www.kci.go.kr

• 국 문 초 록 •

이 연구의 목적은 이범진의 "人生의 金錢觀"(1921)을 통해 그의 금전윤리관과 현재적 함의를 고찰하려는 데 있다. 그는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본문으로 정하여 이 글을 작성했다. 이범진의 금전윤리관에 관한 주요 논점은 그의 희귀본 옥고 "人生의 金錢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이 글은 1921년에 출판된『百牧講演(第一集)』에 수록되어 있다. 이범진의 글 "人生의 金錢觀"에 나타난 핵심적인 논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의 금전윤리관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금전윤리, 위인의 금전윤리, 기독교인의 금전윤리 등 삼중적 관점을 분석했다. 둘째, 그의 고백을 바탕으로 동기론적 윤리, 효율적인 방편으로서의 금전 선용, 청년층의 청지기정신과 소명의식, 부의 사회환원에 대한 책무 등의 실천적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이 사안들에 주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앞으로 본 논문의 외연 차원에서 이범진의 교육활동, 청년운동, 언론종사, 이우구락부(以友俱樂部) 모임 등과 같은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연구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이범진, "人生의 金錢觀",『百牧講演(第一集)』, 금전윤리관, 기독교윤리

www.kci.go.kr